

■ 광주·전남 40만 비정규직의 힘겨운 ‘알바 인생’

생계 막막... 밤잠 설치며 투잡·쓰리잡

신문배달·대리운전 ... “닥치는대로 해야죠”

“무너진 탄광 속에 갇힌 듯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형편은 나빠지기만 하네요. 연건가는 좋아질까요.”

전국적으로 800만명을 넘는 비정규직, 생계 걱정이 일상이 되버린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는 버겁기만 하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만 약 4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은 직장인이라는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인생’이라는 자괴감으로 하루를 보낸다. 적은 급여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Two Job), 쓰리잡(Three Job)’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 하남산단 부품제조 하청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A(34)씨는 대학 졸업 후 지난 5년간 임시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했

다.

월급은 직장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120만~150만원선. 네 식구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주는 직장이지만, 나가라고만 않는다면 평생이라도 일하고 싶은 심정이다. 3개월 뒤,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일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요즘엔 잠도 설친다.

일자리가 끊겨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개월 전부터 신문배달까지 하고 있다. 새벽 3시에 간신히 몸을 일으켜 3시간 동안 신문을 배달한다. 여기서 받는 돈은 50만원. 직장을 잃으면 신문배달로 버는 5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잠 못 이루는 밤도 많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영업직 B(33)

씨는 주간에는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지만 밤엔 점퍼로 갈아입고 대리운전을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생활비와 초등학생 딸아이 학원비를 대기 어렵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받는 김씨의 한 달 급여는 평균 150만원. 하지만 영업직이라 실적이 없는 달은 50만원이 전무다. 교통비와 식비, 가정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면 딸아이 학원비도 부족하다.

결국 대리운전을 하게 됐다. 퇴근 후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8~12차례의 대리운전을 하고 받는 돈은 한 달 100여만원. 하루 평균 4시간 가량 잠을 자는 김씨는 몸이 고단하지만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이다.

김씨는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며 “밤에 쉬고도 싶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대기업에 다니다 3년 전 명퇴한 C(55)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그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받기 위해 보험 영업과 자산관리대행업, 대리운전을 하며 ‘쓰리잡’ 대열에 합류했다.

비정규직인 보험 영업직을 하면서 밤에는 하루 평균 5시간씩 대리운전을 한다. 3건 이상의 보험을 계약해야 한달 200만원 정도 받고, 그 외 실적이 없으면 전혀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하면 한달 80만~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그만 둘 수는 없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자산관리공사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익이지만 자녀의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추석 열차표 10분만에 매진

추석(9월 12일) 연휴를 앞두고 11일 실시한 KTX·새마을호 등 열차표 예매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광주역 대합실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코레일 광주본부에서 실시한 창구예매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끝났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슴결핵 전염 어찌라고?”

결핵 발병한 장성 축사 한달만에 다시 사육

사람에도 감염 우려 ... 느슨한 법무부 바뀌야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결핵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슴결핵이 발병한 축사에서 재사육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사슴결핵이 발병했을 경우 이동제한이나 살처분만 가능할 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축사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는 현행법규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에 따르면 사슴 사육농가에서 사슴결핵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다. 사슴결핵은 2종 법정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검사결과 전체 3분의 1 이상 사슴결핵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육농가에서 키우는 모든 사슴을 살처분하고, 마리당 시가의 60%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슴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슴을 키우던 축사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불과 곧장 또 다

시 사슴 사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말께 사슴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모든 사슴을 살처분 한 장성 모 농가의 경우 약 1개월 뒤 같은 축사에서 약 20마리를 다시 키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과 달리 사슴결핵이 발병한 축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곧장 재사육이 가능한 현행법 때문이어서 관련 법률 개정

이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핵에 걸린 사슴의 고기나 부산물을 보양식으로 섭취할 경우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슴결핵이 일어난 축사에서 일정기간 재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축산위생사업소 관계자는 “사슴결핵 발병 축사에서 당분간 재사육을 하지 말 것을 농가에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기간이 지나서 축사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뒤 문제가 없는 축사에서 재사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600여 농가에서 총 7000마리 가량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옷가게서 돈 훔친 ‘사돈 콤비’

옷 고르는 척 시선 끌고
한 사람은 지갑 훔쳐내
물자에 DNA 남겨 뒀미

안사돈 사이인 50대 여성 2명이 옷가게에서 돈을 훔쳤다가 나란히 입건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백모(여·59)씨와 안모(여·57)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6월 2일 오후 4

시께 광주 동구 자원동 한 옷가게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70만원과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사돈 사이인 이들은 한 사람이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사람이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의자가 범행 도중 물을 마셨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물건의 유전자 감정을 의뢰해 백씨 등을 검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정년퇴직 스트레스’ 돌연사

광주 모 대학 60대 교수, 술 마신 뒤 쓰러져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광주의 한 대학교수가 술을 마신 뒤 돌연사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 모 대학 김모(64)교수가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 임모(63)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이날 김 교수는 대학 동창 5명과 함께 점심 무렵 서구 화정동 한 식당에

서 맥주 3잔과 소주 1잔, 생고기를 먹은 뒤 남구 주월동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년 8월께 정년퇴직이 예정된 김 교수는 최근 6개월 동안 자주 폭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약한 김 교수가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했다”는 유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보해저축銀 거액 이자

명동·강남 ‘큰손’ 체포

광주지점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보해저축은행에 수백여원을 예금하고 거액의 ‘특별 이자’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사채업자 강모(58)씨와 백모(3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강씨와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해저축은행에 각각 300억~400여원을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예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30억원과 126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해저축은행 측은 경제지에 자금

조성 광고를 낸 강씨에게 접근, 유동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채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채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도운 금융보로커 박모(46)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 사채업을 하는 강씨와 백씨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도 예금보조 대상 한도액인 5000만원씩 조계기를 통해 수백여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섹시화보 보세요” 35억 채권 3명 영장

여수경찰

여수경찰은 11일 잘못 걸린 휴대전화 번호로 ‘레이싱 섹시화보’를 보도록 유도에 접속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채권 혐의(사기)로 김모(45·모바일콘텐츠사업자)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유료콘텐츠를(레이싱걸 섹시화보)을 보도록 만들어 접속 건당 2990원이 자동결제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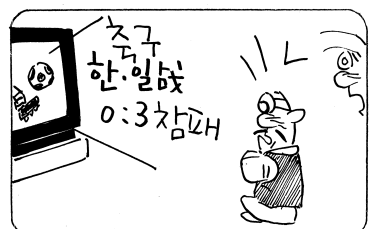
정보이용료로 35억원을 받아 채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에 콘텐츠 공급업체 7개사를 운영하면서 모바일 도메인 930여개를 등록한 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단축번호나 전화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 화보에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콘텐츠 공급업자와 결계대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범행을 해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나원침 (8378)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반대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을 반대한다”며 “출력증강시 주민협의 후 시행해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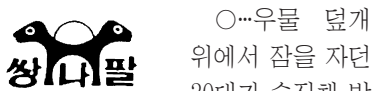
영광원전은 12일 오전 11시 한전영광지점 전력문화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핵발전소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설비 안전여도를 떨어뜨리는 출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6만 영광주민과 329만명에 달하는 인접(반경 75km 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2005년 핵반응로(일명 원자로)의 열 출력을 높여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고 영광 1.2호기 출력증강을 추진했지만 영광군과 군의회, 환경단체, 주민 등의 반발로 한때 추진을 중단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술 취해 우물 덮개위 자다다 익사



견돼 경찰이 사인 조사에 착수.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8시10분께 해남군 마산면 한 마을의 우물 안에서 A(35)씨가 숨진 채 발견.

○...이 우물은 깊이 5m, 수심 2m 정도로 한때 마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A씨가 우물 덮개 위에서 잠을 잤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김영출신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